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삶의 질 영향요인의 다면적 탐색

- 거주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유익선

삶의 질 영향요인의 다면적 탐색

- 거주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태 현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유 익 선

유익선의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권 혁 주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전 소 희 _____ (인)

위 원 _____ 최 태 현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거주지역의 사회적다양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변수들을 구축하였으며, 「KOSIS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수준 변수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지역의 사회적다양성(소득 다양성, 국적 다양성)과 개인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회적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늘어난다는 ‘갈등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과 함께 지역 수준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층 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니며,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사회적다양성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시계열적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접촉과 관련된 논의에서 제기되는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지수를 산출하였으나 접촉의 질, 상호작용 형태 등을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에서 구득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개인 수준

의 종속변수를 자치구 수준의 독립변수로 설명함으로 인하여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주요어 : 사회적다양성, 삶의 질, 서울서베이, 다층 분석

학 번 : 2021-28266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사회적자본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5
제 2 절 삶의 질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7
제 3 절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8
1. 사회·경제적 요인	8
2. 사회적 관계	9
3. 지역특성	11
제 4 절 본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14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6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6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16
2. 연구자료의 수집	18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제 3 절 분석방법	28
제 4 장 분석결과	29
제 1 절 빈도분석	29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1

제 3 절 상관분석	35
제 4 절 다중공선성 진단	39
제 3 절 다수준분석	41
제 5 장 결론	48
제 1 절 연구의 요약	48
제 2 절 연구의 함의	51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53
참고문헌	54
Abstract	61

표 목 차

[표 1] 분석변수와 출처	25
[표 2] 설문응답자의 특성	29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1
[표 4] 자치구별 변수 특성	33
[표 5] 상관관계분석_개인수준	36
[표 6] 상관관계분석_지역수준(행정안전부자료)	37
[표 7] 상관관계분석_지역수준(생활인구자료)	38
[표 8] 다중공선성 진단	40
[표 9] 기초모형의 분석결과	41
[표 10] 다수준모형 분석결과 1	44
[표 11] 다수준모형 분석결과 2	46
[표 12] 가설검정 결과	5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다. 1인당 GDP는 1974년 \$563에서 2022년에 \$32,236로 57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글로벌 국력 순위(Most Powerful Countries)’는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경제적 영향력·정치적 영향력·리더십 역량·국제관계 등에서 OECD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OECD 평균(6.7점)보다 낮은 수치로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명 이하를 기록하였다. 우리 사회를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장밋빛으로만 보이던 양적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에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정과제 관리 방안의 평가 지표로 ‘국민 만족도’를 도입하였고,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며 OECD BLI 지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들에서도 행복지표, 행복 조례 등을 제정하여 공공정책을 디자인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삶의 질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삶의 질 지표들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지 못하다.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과거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답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금전적 요인이나 물질적인 요인이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또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본다면 군집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인의 행복은 달라질 것이다. 이외에도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적인 영역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개인의 행복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이양수, 2019).

지금까지 삶의 질, 행복 또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1960~1970년대에는 주로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득 증가와 물질적 풍요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상민 외, 2020). 예를 들어 건강, 교육, 주거, 소득과 같은 객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Easterlin(1974)이 GDP의 증가가 행복을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주관지표와 객관지표 간의 괴리 가능성을 지적한 이후 대안적인 지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후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GDP를 넘어서(beyond GDP)’라는 흐름 하에서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OECD, 2001 ; Bjørnskov, 2003 ; Diener & Seligman, 2004; Helliwell & Putnam , 2004 ; 박희봉·이희창, 2005 ; 정순돌·성민현, 2012 ; 권미조 외, 2018).

대표적으로 사회자본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OECD(2001)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자본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포함시켰으며 Bjørnskov(2003), Helliwell & Putnam(2004)

, Diener & Seligman(2004)은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자본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 지역사회 발전, 공동체 및 조직의 성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졌다. 예를 들어 빈곤과 불평등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주목받았다(Light, 2004). 이와 관련하여 김혜연(2011)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면 이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집단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다양성이 주목받고 있다(Prezza and Costatini , 1988 ; 고은정, 2014 ; 조민지·임업, 2016). Prezza and Costatini(1988)는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고은정(2014)이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조민지·임업(2016)은 사회적 다양성과 장소 애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동체 의식, 사회자본, 장소 애착 등이 최종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행복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많은 연구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 중 일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조명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많지 않다. 또 사회적 다양성의 기대효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사회적 다양성이 한국사회의 맥락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 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삶의 질 영향요인을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변수들을 구축하였으며, 「KOSIS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수준 변수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조사 시점인 2020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로 설정하였다.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 수준의 변수를 구축한다. 둘째, 거주지역의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 수준 변수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삶의 질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 분석을 위해 STATA 17.0을 사용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Broudieu 이후 2가지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혜연, 2011).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지식 등 ‘획득 가능한 자원’으로서 보는 관점이다(김동현·전희정, 2018). 이들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원에 접근하여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연결망 속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Lin, 2001).

한편 또 다른 관점은 사회적 자본을 경제발전과 민주적 질서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네트워크와 사회집단에 참여하는 등의 집합적 행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Putnam, 1993). 즉 그 사회 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충분하다면, 범죄, 빈곤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안성호·곽현근, 2003). 사회적 자본을 공공재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논의는 Coleman(1988)과 Putnam(1993)에 의해 이루어졌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구조에 속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집단과 조직 내에서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보았다. 한편 Putnam(1993)도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과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축적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라고 하였다. 특히 시민적 참여의 연결망인 네트워크가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네트워크와 시민적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과 신뢰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Putnam, 1993).

종합하자면,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학자들 간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 간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 집단 내의 공동선(collective goods)을 추구하여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연결(connectedness) 혹은 연계(social tie)로 이어진다고 본다.

제 2 절 삶의 질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20세기 중반부터 값진 삶(virtuous life)와 좋은 삶(good life), 그리고 행복한 삶(happy life)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신은보, 2018). 삶의 질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고 여러 수준에 걸쳐 연구되어왔지만, 여전히 ‘삶의 질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개념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접근과 주체들의 만족을 중시하는 주관적 접근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주로 경제학적 전통에 기반하며 관찰자의 평가와 사회적 사실을 측정한다. 객관적 접근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문제의 실태와 해결을 위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과학성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에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교육 수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주거상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반면 후자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측정한다. 주관적 접근은 개별 주체의 주관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을 자신의 삶의 질 평가의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여긴다. 주관적인 만족은 사회적인 욕구 충족과 같은 정신적인 만족과 더불어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안전을 포함하는 감정적인 영역까지 내포한다(서문기, 2015). 이와 관련하여 Hollar(2003)는 삶의 질이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총체적인(holistic)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삶의 질을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 요인과 삶의 전반에 걸친 효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생활환경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김태형 외, 2018).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인구·사회학적 조건, 소득, 전반적인 안전, 사회적 관계, 환경 등 객관적·주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사회경제적 요인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에 Ogburn(1935)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구교준 외, 2020). ‘Good life movement’로 불리는 초기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ross National Product(GNP)와 같은 경제 관련 지표에 집중하였다. 이후에도 현재 사회의 시간적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회지표들이 연구되어졌다. 예를 들어 교육, 주택, 전반적인 안전 등과 같이 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어졌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까지도 OECD의 Better Life Index(BLI)등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이 개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 성별, 학력 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주거점유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성민현, 2012 ; 김미곤 외, 2014 ; 이연경·이승중, 2017 ; 김성아, 2018 ; 이수기, 2018). 연구 결과 김성아(2018)는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연경·이승중(2017)은 객관적인 소득수준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수기(2018)는 개인의 주택 유형과 주거점유 여부 등 주거의 특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는데 개인이 주거를 점유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회적 관계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Helliwell & Putnam, 2004; Bjørnskov, 2006; 한세희 외, 2010; 김혜연, 2011; 최예나·김이수, 2015; 권미조 외, 2018).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일상에서도, 학술적으로도 많이 강조되어왔다. Helliwell & Putnam(2004)은 세계가치관조사(The World Values Survey)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신뢰, 참여, 사회적 관계망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Bjørnskov(2006)는 8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신뢰가 삶의 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자본 영역 중 신뢰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박희봉·이희창(2005)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성인 7,392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네트워크와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한세희 외(2010)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81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 요인인 개인 네트워크, 시민참여 네트워크, 신뢰 모두 주관적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뢰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혜연(2011)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신뢰, 참여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나·김이수(2015)는 전라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주민의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행복감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미조 외(2018)는 경기도 전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자본은 빈곤과 불평등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자본이 취약한 빈곤층들은 다른 자본 대비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 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내 집단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Light, 2004).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된다(Rydin and Holman, 2004). 종합하자면,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지역 특성

최근에는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맥락요인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를 전후로 서구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범죄 등의 각종 사회병리 현상들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인종차별의 원인으로 주거지 분리를 주장한 Massey와 Denton(1993)의 연구를 기점으로, 빈곤과 범죄, 비행, 일탈 등의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neighborhood effect)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졌다. 사회생태체계론(socio-ecological systems theory)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환경은 개인에게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은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송효준 외, 2018).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 가운데 지역사회의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환경은 크게 근린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별된다. 먼저 근린 환경이란 거주민들이 포함된 환경과 근접성을 공유하는 지리적 단위이자 공간적인 개념이다. 근린 환경의 구성요소는 연구자 별로 차이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주거환경, 자연 녹지환경, 시설에 대한 접근성, 범죄 혹은 사고로부터의 안전성 등이 포함된다(이경태·권영주, 2010; 장인수·김홍석, 2013; 최희용 외, 2020). 이경태·권영주(2010)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 일반행정, 사회복지, 공공안전의 6가지 부문을 활용하였다. 장인수·김홍석(2013)는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녹지 면적, 가로녹시율, 공공 체육시설 등 지역의 물리적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희용 외(2020)는 도시의 사회적 다양성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학생 1인 당 교원 수,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등의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들을 변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적 환경이란 이웃 등의 인간관계에 기반한 환경을 의

미한다. 사회적 환경의 하위 요인이자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적 다양성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정도를 말하며, 도시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고은정, 2018). 도시의 사회적 다양성 측정 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의 연령, 인종, 교육 수준 등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역 다양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채희원 외, 2015).

다음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된 논의는 상호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갈등 가설(conflict hypothesis)과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이 양립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다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으로, Allport(1954)으로부터 논거를 찾을 수 있다. Allport(1954)를 비롯한 접촉이론 지지자들은 첫째, 상호 간 접촉을 통하여 외집단의 특성을 체득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상대에 대한 입장 및 태도를 변화시키며 셋째, 외집단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넷째, 외집단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집단 간 위협이나 편견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Pettigrew, 1988). 이때 위협이나 편견에 대한 인지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Florida(2004)는 사회의 다양성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Florida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창조계급이라 정의하였고, 이러한 다양성은 창조계급이 창출하는 수익과 소득을 높여 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Cole and Goodchild(2000)는 사회적 다양성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성숙을 야기하는 사회적 충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숙은 그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높은 만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Talen(2006)은 사회집단의 혼합이 더 관용이 높고 안정적인 사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다양성 추구를 언급하였다. 또 Goodchild and Cole(2001) 사회집단을 혼합하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의 교류가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Orfield(2002)는 대도시의 경우 분리되지 않고 다양성이 높은 장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언급하며 사회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사회적 다양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지지자들은 갈등 가설을 주장하며,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편견(prejudice), 고정관념(stereotype) 등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하였다(Levine and Campbell, 1972).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정순돌, 성민현, 2012). 그러나 Putnam(2007)은 급격한 이민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지역의 동질성과 사회자본이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Bjørnskov(2007)는 국가 수준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Alesina and La Ferrara(2002)는 인종 또는 민족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시민적 참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감소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다양성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Prezza and Costatini(1988)는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 간의 정의를 관계를 규명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은정(2014)의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와 조민지·임엽(2017)의 사회적 다양성과 장소 애착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지만, 앞서 논의된 공동체 의식, 사회자본, 장소 애착 등이 최종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곽현근, 2008 ; 고명철, 2013),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본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 중 일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사회계층을 분리시켰고 이는 우리 사회갈등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불평등은 점차 미시적 수준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은정, 2018). 따라서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한 유럽이나 미국 등은 소득·인종·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다양성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오랜 기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오랜 기간 비교적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온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다양성과 교육 다양성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외국인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219만 명을 넘겼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출신국도 다양하여 우리나라에서 인종적 다양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2).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며, 기존의 사회적 다양성 변수에 더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초점을 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소득 다양성 변수에 지역사회의 외국인 비율, 엔트로피 index를 활용한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 그리고 노출지수를 인종 다양성의 하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던 연구의 층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생활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할 때 제기되었던 방법론적 한계를 좁힐 수 있다. 기존에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활동 인구를 측정하는데 주로 다루어

져 왔던 개념은 상주인구 또는 주간 인구였다(통계청, 2020). 통계청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주간 인구(Daytime Population)는 상주인구(야간인구)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 인구(주간 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통근·통학인구(주간 유출인구)를 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주인구와 주간 인구는 통근과 통학 외 인구이동이나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김형준 등, 2021; 류은혜·김은정, 2021). 따라서 생활인구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첫째, 위치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황주원·장성만, 2022), 둘째, 특정 인구의 야간 거주지와 주간 생활공간 분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조월 등, 2021),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대 특성에 의한 시간대별 공간분포 정보를 제공한다(이유진·최명섭, 2018)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활력과 도시공간 내 인간 활동의 수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당 공간에 머무는 인구특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을 사용하였다(정재훈·남진, 2019; 조월 등, 2021).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준분석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Helliwell & Putnam, 2004; Bjørnskov, 2006; 한세희 외, 2010; 김혜연, 2011).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공동체 의식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지원망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신뢰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된 논의는 상호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갈등 가설(conflict hypothesis)과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이 양립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희용 외(2020)는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령다양성, 주택다양성, 직업다양성, 소득다양성을 활용한 바 있다. 연구결과 소득다양성은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소득의 경우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의 변수를 투입한 본

연구 모형에서도 소득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유럽, 미국 등과 다르게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왔으며 근래에 급격한 속도로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화되거나 (assimilation) 관용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적의 다양성과 외국인과의 접촉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지역 내 소득 다양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지역 내 국적별 혼합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지역 내 노출지수는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삶의 질 영향요인을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변수들을 구축하였으며, 「KOSIS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수준 변수를 구축하였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정책지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시책의 객관적 검증 및 서울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통계조사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 사회관계별 소통 정도, 공동체 의식,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가구 월 평균 소득,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 체감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추출된 표본을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서울서베이, 2020).

「KOSIS e-지방지표」는 국가 공인통계로서 통계청에서 200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역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그 중 「e-지방지표」 자료는 인구, 건강, 교육, 환경 등 1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21개의 지표를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제공한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행정동 단위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자료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인구를 추계한 데이터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측면에서 활동 인구를 측정하는데 주로 다루어져 왔던 개념은 상주인구 또는 주간 인구였다. 통계청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주간 인구(Daytime Population)는 상주인구(야간인구)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 인구(주간 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통근·통학인구(주간 유출인구)를 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주인구와 주간 인구는 통근과 통학 외 인구이동이나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김형준 등, 2021; 류은혜·김은정, 2021). 생활인구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한다(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KT BigData 사업지원단, 2018). 즉, 1시간 단위의 ‘특정 시점’에, 서울시의 자치구(25개), 행정동(424개), 집계구(19,153개)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생활인구로써 추계하는 것이다. 생활인구 데이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황주원·장성만, 2022), 둘째, 특정 인구의 야간 거주지와 주간 생활공간 분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조월 등, 2021),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대 특성에 의한 시간대별 공간분포 정보를 제공한다(이유진·최명섭, 2018)는 것이다. 즉, 도시의 활력과 도시공간 내 인간 활동의 수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당 공간에 머무는 인구특성을 설명해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조사 시점인 2020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료 구득 상의 한계와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국적별 혼합도와 노출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정동 단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과 외국인 수 자료가 필요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자료 구득 상의 한계로 본 연구의 제2수준 변수인 지역 수준 변수를 구성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활용할 노출지수는 거주 지역 내 외국인의 비율이 높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므로 접촉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박세훈 외, 2009).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서울시와 KT에서 제공하는 생활 인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사회적 다양성 정도를 측정할 지역단위 변수(level 2)와 각 자치구 안의 사회적 자본 및 삶의 질에 응답한 개인단위 변수(level 1)로

된 구조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설정하였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자본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1) 공동체 의식, 2) 사회적 지원망, 3) 신뢰로 측정하였다.

①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점유 형태, 전반적인 사회 안전으로 구성하였다(정순돌·성민현, 2012 ; 이연경·이승중 , 2017 ; 이수기 , 2018). 성별은 남성이 0, 여성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그대로 연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혼인은 기혼/동거, 미혼, 이혼/별거/사별로 범주화하였고 기혼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1) 공동체 의식, 2) 사회적 신뢰, 3) 사회적 지원망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공동체 의식 변수는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네 가지 문항 평균값을 공동체 의식 변수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강성익·구자훈, 2020).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의 문항을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김동현·전희정, 2018).

지역 수준 변수는 사회적 다양성 변수와 기타 지역적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③ 사회적 다양성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은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 지니계수(Gini index),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 허쉬만-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등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일반화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조민지, 2017). 다양성 측정은 풍성함(richness), 균등성(evenness)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풍성함은 한 지역에 분포하는 종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와 관련되며 균등성은 한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종에 해당하는 개체 수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느냐와 관련된다(채희원 외, 2015). 예를 들어, 공원 1과 공원2에 분포하는 식물 종이 각각 5가지, 10가지라면 공원2가 1보다 풍성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만약 공원 1은 5개 종의 개체 수비율이 20%로 동일하고, 공원 2에 있는 10개 종의 비율은 3%~40%로 다양하다고 가정하면 균등성은 공원 1이 공원2보다 높은 것이다.

- 소득 다양성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득 다양성을 측정할 것이다. 엔트로피 지수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 다수의 하위 집단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 내에 각 집단들이 균일한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산업, 인종, 소득수준 등의 사회적 다양성 측정에 활용된다(조민지, 2017).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자료에서는 가구별 월평균 소득수준을 50만 원 미만부터 900만 원 이상까지 50만 원 단위의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Entropy_i = - \frac{\sum_{j=1}^{10} (P_{ij} \times \ln P_{ij})}{\ln 10}$$

* $Entropy_i$: i 지역의 소득 다양성

** P_{ij} : i 지역에서 소득분위 j 가 차지하는 비율

- 인종 다양성

거주지역 내 외국인의 비율이 높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접촉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박세훈 외, 2009). 실제 접촉 횟수를 사용하면 정확한 접촉의 정도는 확인 가능하지만 개인적 수준의 연구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 자료와 생활인구를 각각 활용하여 인종 다양성을 측정할 것이다.

생활인구는 방문자 인구, 노숙자 인구, 계절적 인구(생활편의 시설을 찾는 인구와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 다른 지역의 거주자로 구성된 주간 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거주 인구로 구성된 개념이다(Swanson & Tayman, 2011). 생활인구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특정 지역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실제 정주 인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외국인 수를 사용하면 외국인 주민 수를 보는 것보다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김경준 외, 2022).

생활인구 조사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인구를 조사한다. 여기서 서울 생활인구란 조사 시점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한다(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KT BigData 사업지원단, 2018). 생활인구 조사는 시간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0월 한

달을 생활인구 측정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근린 환경 특성으로는 크게 외국인 인구 비율과 국적별 혼합도 및 노출지수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로, 외국인 인구 비율은 KOSIS 국가통계 포털의 e-지방지표를 활용하여 국적별 외국인 인구를 활용하였다. 외국인 인구 비율은 자치구 내 외국인 인구를 자치구 인구로 나눈 값을 정규 분포 형태를 취하기 위해 자연로그 형태로 변수로 활용하였다(사경은·이수기,2018).

1) 외국인 인구 비율

$$\text{외국인 인구 비율} = \text{Ln}(\text{자치구 내 외국인인구}/\text{자치구 인구})$$

두 번째로, 단순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인구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외국인들의 국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적별 혼합도를 측정하였다. 국적별 혼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엔트로피 지수(식 1 참고)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혼합되어 있는 근린을 의미한다(사경은·이수기, 2018 ; 하승현 외, 2017).

2) 국적별 혼합도

$$\text{국적별혼합도} = - \sum_{i=1}^k \frac{p_i \times \ln(p_i)}{\ln(k)}$$

* k = 국적 개수

* p_i = i 국적의 외국인 비율

세 번째로, 거주지 노출(residential exposure)은 한 도시 안에서 두 개의 사회집단 성원들 간의 접촉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집단성원들이 한 도시의 지역단위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자신들끼리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만 타 집단성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이들의 인구 비율이 낮으면 자신들끼리 노출될 가

능성은 낮고 타 집단성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높게 된다. 사회관계는 주로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노출지수는 이러한 사회관계를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측정지수라고 할 수 있다(윤인진,1988).

3) 노출지수

$$\text{노출지수} = xPy = \sum_{i=1}^n [x_i/X][y_i/t_i]$$

노출지수는 집단 X 의 상대적 크기로 가중치를 부여한 각 지역단위에서의 집단 Y 의 비율의 평균값이다. 여기서 x_i 와 y_i 는 i 지역에서의 X 집단과 Y 집단의 인구수이고 t_i 는 i 지역의 총인구수이다. X 는 전체지역에서의 X 집단의 총 인구수이다.

<표 1> 분석변수와 출처

구분	변수	변수설명	자료 출처
종속 변수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0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만족한다)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제1수준 : 개인수준			
	성별	0= 남성, 1= 여성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연령	단위 : 년	
	월평균 가구소득	① 50만 원 미만 ② 50 - 100만 원 미만 ③ 100 - 150만 원 미만 ④ 150 - 200만 원 미만 ⑤ 200-250만 원 미만 ⑥ 250만 원-300만 원 미만 ⑦ 300-350만 원 미만 ⑧ 350-400만 원 미만 ⑨ 400-450만 원 미만 ⑩ 450-500만 원 미만 ⑪ 500-550만 원 미만 ⑫ 550-600만 원 미만 ⑬ 600-650만 원 미만 ⑭ 650-700만 원 미만 ⑮ 700-750만 원 미만 ⑯ 750-800만 원 미만 ⑰ 800-850만 원	

				미만 ⑱ 850-900만 원 미만 ⑲ 900만 원 이상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동거	
				① 전혀 두렵지 않다 ② 두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두려운 편이다 ⑤ 매우 두렵다	
				자가주택 =1, 그 외 = 0	
독립 변수	사회자본	지역 사회 소속감	잘 알고 지내는 편	1~5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사회적 지원망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단위 : 명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공공·지역사회 신뢰	대부분의 낮은 사람 신뢰도	1.전혀 신뢰 안함 2.별로 신뢰 안함 3. 약간 신뢰한다 4. 완전히 신뢰한다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제2수준 : 지역 수준					
	소득다양성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10개 분위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는지를 측정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인종 다양성	외국인 비율	Ln(자치구 내 외국인 인구/ 자치구 인구)		
		국적별 혼합도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엔트로피 index)		
		거주지 노출	노출지수		
기타 지역 변수(통제 변수)	재정자립도		단위 : %		e-지방지표(2020)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 명		
	학생 1인당 교원 수		단위 : 명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천m ²		

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빈도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자치구별 변수 특성, 상관분석,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다수준분석은 5단계로 수행되었다. 먼저 기초 모형(Unconditional mean model) 검증을 통해 다층분석방법의 적용이 적절한지 판단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개인 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기타 지역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지역 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빈도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2>와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19,249명(48.02%) , 여성은 20,836명(51.98%)로 분포하였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9,741명(24.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8,968명(22.37%), 50대 7,782명(19.41%) , 60대 5,415명(13.51%), 20대 3,743명(9.34%), 70대 이상 2,734명(6.82%), 20세 미만 1,702명(4.25%) 순이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동거가 27,468(68.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미혼 9,373명(23.38%), 이혼/별거/사별 3,244명(8.09%)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여부의 경우 자가 24,681명(61.57%) , 비자가 15,404명(38.4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분포는 송파구가 2,122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914명(2.28%)으로 가장 적었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9,249	48.02
	여성	20,836	51.98
	총계	40,085	100.00
연령	20세 미만	1,702	4.25
	20대	3,743	9.34
	30대	8,968	22.37
	40대	9,741	24.30
	50대	7,782	19.41
	60대	5,415	13.51
	70대 이상	2,734	6.82
	총계	40,085	100.00
혼인상태	기혼/동거	27,468	68.52

	미혼	9,373	23.38
	이혼/별거/사별	3,244	8.09
	총계	40,085	100.00
주택입주 형태	비자가	15,404	38.43
	자가	24,681	61.57
	총계	40,085	100.00
자치구	종로구	1,046	2.61
	중구	914	2.28
	용산구	1,304	3.25
	성동구	1,424	3.55
	광진구	1,540	3.84
	동대문구	1,519	3.79
	중랑구	1,630	4.07
	성북구	1,715	4.28
	강북구	1,556	3.88
	도봉구	1,491	3.72
	노원구	1,760	4.39
	은평구	1,775	4.43
	서대문구	1,474	3.68
	마포구	1,535	3.83
	양천구	1,775	4.43
	강서구	1,982	4.94
	구로구	1,738	4.34
	금천구	1,257	3.14
	영등포구	1,632	4.07
	동작구	1,619	4.04
	관악구	1,930	4.81
	서초구	1,651	4.12
	강남구	1,965	4.90
	송파구	2,122	5.29
	강동구	1,731	4.32
	총계	40,085	100.00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표 3>과 같다. 2020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에 응답한 40,085명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10점 척도로 조사되었고 평균 6.37점으로 나타났다. 개인 수준 변수 중 사회적 신뢰는 4점 척도 중 평균 2.07점이었고, 전반적인 사회 안전은 5점 척도 중 평균 3.01점, 사회적 지원망은 평균 2.82점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체 의식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2.6점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수준 변수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산출하였다. 먼저 기타 지역 수준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는 평균 36.25%,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14.8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4.98명, 녹지율은 평균 3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 변수인 자치구 별 소득 다양성 지수는 평균 165의 값을 보였고 행정안전부 데이터로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1은 평균 26.38명,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로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2는 평균 43.65명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를 엔트로피로 산출한 결과 평균 2.21의 값을 보였고, 행정안전부 데이터로 산출한 노출지수 1은 평균 0.39,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로 산출한 노출지수 2는 평균 0.04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개인 수준					
사회적 신뢰	40,085	2.07	.69	1	4
사회적 지원망	40,085	2.82	2.85	0	56
공동체 의식	40,085	2.6	.86	1	5
전반적인 사회 안전	40,085	3.01	.83	1	5
삶의 질	40,085	6.37	1.78	0	10
지역 수준					
재정자립도(%)	25	36.25	13.13	22	69.3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5	14.80	3.19	10.91	21.67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4.98	3.78	2.2	21.6

녹지율(%)	25	36.38	14.77	.25	59.15
소득 다양성 지수(entropy)	25	.165	.02	.1	.21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1	25	26.38	21.36	6.32	75.82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	25	2.21	.56	.93	3.27
외국인 노출지수 1	25	.03	.02	.01	.10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2	25	43.65	25.15	11.92	94.62
외국인 노출지수 2	25	.04	.02	.01	.08

본 연구의 지역 수준 변수에서 활용되는 변수를 25개 자치구별로 산출한 값은 <표 4>와 같다. 재정자립도는 강남구가 69.3%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22%로 가장 낮았으며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36.25%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동대문구가 21.67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10.91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치구별 평균은 14.8명이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종로구가 21.6명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2.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치구별 평균은 4.98명이었다. 녹지율은 노원구가 59.15%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25%로 가장 낮았으며 자치구별 평균은 36.38%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소득 다양성 지수(entropy)는 중구가 0.215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구가 0.107로 가장 낮은 불평등지수를 보였다.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는 용산구가 3.273으로 가장 높았고 구로구가 0.93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는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중구가 75.82명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6.3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구가 94.62명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11.92로 가장 낮았다. 노출지수는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천구가 0.102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0.014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중구가 0.08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가 0.011로 가장 낮았다.

<표 4> 자치구별 변수 특성

자치구	재정자립도 (%)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녹지율 (%)	소득 다양성 지수 (entropy)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 (entropy)	행정안전부 데이터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1	노출 지수 1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2	노출 지수 2
종로구	50.3	16.23	21.6	46.74	.174	2.291	62.94	.0665	64.07	.0589
중구	64.2	17.39	10.2	.25	.215	2.616	75.82	.0797	94.62	.0854
용산구	49.2	13.72	3.7	40.64	.138	3.273	64.28	.0666	72.33	.0665
성동구	40.7	16.11	3.8	25.78	.163	2.234	23.36	.038	49.14	.0461
광진구	33.1	19.98	3.8	30.89	.174	1.999	37.15	.0525	63.39	.0569
동대문구	28.2	21.67	5.5	2.69	.159	2.164	43.29	.054	71.58	.0645
중랑구	25.6	14.04	2.8	39.67	.138	2.075	11.71	.0251	19.53	.0191
성북구	28.6	20.1	3.2	26.13	.184	2.471	22.33	.0326	40.48	.0382
강북구	25.4	12.05	2.5	52.74	.107	2.346	11.3	.0222	19.66	.0192
도봉구	25.1	13.37	2.2	49.84	.198	2.576	6.32	.0145	11.92	.0118
노원구	22	16.98	3.4	59.15	.144	2.532	7.81	.0144	12.22	.012
은평구	24.8	12.01	2.8	46.67	.176	2.474	8.17	.0181	17.04	.0167
서대문구	33.2	19.28	6.7	11.1	.186	2.465	35.56	.0457	61.68	.0565
마포구	39.2	18.21	3	40.03	.173	2.645	26.51	.0343	54.29	.0507

양천 구	30.5	13.12	3.2	23.14	.205	2.144	7.12	.0176	17.97	.0176
강서 구	27.1	12.28	3.1	54.27	.19	2.430	9.49	.0208	24.99	.0243
구로 구	28.8	14.89	3.8	25.61	.153	.9304	61.52	.092	92.27	.0807
금천 구	33.6	11.04	2.5	22.25	.184	.9347	61	.102	82.01	.0749
영등 포	43.1	11.68	5.2	35.76	.126	.9727	63.88	.0963	83.87	.0728
동작 구	31.9	19.21	3.8	40.64	.188	1.748	23.04	.0393	42.4	.04
관악 구	26	11.75	2.3	46.83	.174	1.949	28.31	.0484	48.9	.0459
서초 구	64.1	10.91	8.1	56.9	.122	2.929	9.43	.0205	30.09	.0292
강남 구	69.3	13.01	13.4	34.51	.158	2.926	8.93	.0195	33.78	.0325
송파 구	46.9	12.67	5.6	29.75	.149	2.207	8.55	.0189	25.15	.0244
강동 구	30.4	12.68	4.9	44.43	.167	2.174	8.23	.0189	20.78	.0202
평균	36.25	14.80	4.98	36.38	.165	2.217	26.38	.0398	43.65	.0403

제 3 절 상관분석

본 연구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두 가지 분석 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지역 수준 변수들을 각각 활용하여 삶의 질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먼저 <표 5>에 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개인 수준의 변수에서는 연령, 가구소득, 혼인상태, 전반적인 사회 안전, 주택입주 형태, 공동체 의식,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신뢰가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이나 사별/별거/이혼 등에 비해 결혼/동거일수록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사회적 지원망·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수준 변수들은 행정안전부 자료와 서울시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각 데이터의 삶의 질과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의 행정안전부 자료와 <표 7>의 서울시 생활인구 자료 모두 소득 다양성지수(entropy), 재정자립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다양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지역 수준의 외국인 변수들 간에는 상당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양자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다수준 분석에 앞서 이들 변수의 투입에 관한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_개인 수준

	(1)	(2)	(3)	(4)	(5)	(6)	(7)
(1) 삶의 질	1.0000						
(2) 연령	-0.0506*	1.0000					
(3) 성별(남성)	-0.0051	0.0215*	1.0000				
(4) 가구소득	0.1997*	-0.1785*	0.0458*	1.0000			
(5) 결혼/동거	0.0627*	0.3290*	0.0674*	0.2248*	1.0000		
(6) 미혼	-0.0389*	-0.5928*	0.0071	-0.0903*	-0.8151*	1.0000	
(7) 이혼/별거/사별	-0.0463*	0.3598*	-0.1257*	-0.2427*	-0.4378*	-0.1639*	1.0000
(8) 전반적인 사회 안전	0.2218*	0.0218*	0.0329*	0.0296*	0.0148*	-0.0167*	0.0007
(9) 주택입주 형태	0.0919*	0.1945*	0.0146*	0.2172*	0.1116*	-0.1126*	-0.0153*
(10) 공동체 의식	0.2385*	0.1975*	-0.0499*	0.0016	0.1001*	-0.1686*	0.0912*
(11) 사회적 지원망	0.2362*	-0.0832*	-0.0048	0.0995*	-0.0184*	0.0564*	-0.0562*
(12) 사회적 신뢰	0.1056*	0.0581*	0.0227*	-0.0028	-0.0397*	0.0065	0.0576*
	(8)	(9)	(10)	(11)	(12)		
(8) 전반적인 사회 안전	1.0000						
(9) 주택입주 형태	0.0029	1.0000					
(10) 공동체 의식	0.1983*	0.1368*	1.0000				
(11) 사회적 지원망	0.1039*	-0.0081	0.0798*	1.0000			
(12) 사회적 신뢰	0.1022*	0.0278*	0.2904*	0.0327*	1.0000		

<표 6> 상관관계 분석_지역 수준(행정안전부 자료)

	(1)	(2)	(3)	(4)	(5)	(6)	(7)
(1) 삶의 질	1.0000						
(2) 소득 다양성 지수(entropy)	-0.0241*	1.0000					
(3)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	-0.0001	0.0085	1.0000				
(4)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1	-0.0020	0.0059	-0.4489*	1.0000			
(5) 노출지수 1	-0.0025	-0.0291*	-0.6552*	0.9567*	1.0000		
(6) 재정자립도	0.0172*	-0.1834*	0.3423*	0.1830*	0.1018*	1.0000	
(7) 교원 1인당 학생 수	0.0207*	0.2842*	0.0698*	0.2265*	0.1033*	-0.1630*	1.0000
(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0.0213*	-0.0290*	0.2382*	0.2206*	0.0989*	0.7076*	0.0453*
(9) 녹지율	-0.0094	-0.3326*	0.2510*	-0.4822*	-0.4501*	-0.1357*	-0.4952*
	(8)	(9)					
(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0000						
(9) 녹지율	-0.1036*	1.0000					

<표 7> 상관관계 분석_지역 수준(생활인구자료)

	(1)	(2)	(3)	(4)	(5)	(6)	(7)
(1) 삶의 질	1.0000						
(2) 소득 다양성 지수(entropy)	-0.0241*	1.0000					
(3)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	-0.0001	0.0085	1.0000				
(4)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2	0.0018	0.0239*	-0.4758*	1.0000			
(5) 노출지수 2	0.0019	0.0350*	-0.4545*	0.9991*	1.0000		
(6) 재정자립도	0.0172*	-0.1834*	0.3423*	0.2355*	0.2503*	1.0000	
(7) 교원 1인당 학생 수	0.0207*	0.2842*	0.0698*	0.3009*	0.3058*	-0.1630 *	1.0000
(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0.0213*	-0.029*	0.2382*	0.1881*	0.1973*	0.7076*	0.0453*
(9) 녹지율	-0.0094	-0.3326*	0.2510*	-0.5863*	-0.5893*	-0.1357 *	-0.4952*
	(8)	(9)					
(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0000						
(9) 녹지율	-0.1036*	1.0000					

제 4 절 다중공선성 진단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 변수들 간에는 상당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려되어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하였다. 먼저 (1)번 모델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노출지수와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3)에도 동일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형(2)와 모형(4)와 같이 두 자료 모두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변수를 제외한 뒤 분산 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분산 팽창지수 값이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다수준분석에서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다중공선성 진단

변수명	VIF			
	(1)	(2)	(3)	(4)
노출지수	85.82	2.61	893.31	2.61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62.53		911.39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	9.63	3.01	2.94	2.44
재정자립도	4.38	3.50	3.97	3.8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98	2.25	2.28	2.26
녹지율	2.27	2.22	2.30	2.30
교원 1인당 학생 수	2.03	1.88	2.11	2.11
소득 다양성지수(entropy)	1.31	1.30	1.46	1.30
가구소득	1.22	1.22	1.22	1.22
공동체 의식	1.20	1.20	1.20	1.20
연령	1.15	1.15	1.15	1.15
주택입주 형태	1.13	1.13	1.13	1.13
혼인상태	1.10	1.10	1.10	1.10
사회적 신뢰	1.10	1.10	1.10	1.10
전반적인 사회 안전	1.06	1.06	1.06	1.06
사회적 지원망	1.04	1.04	1.04	1.04
성별(남성)	1.03	1.03	1.03	1.03
Mean VIF	10.65	1.68	107.63	1.68

- * (1) 행정안전부 자료(full)
 (2) 행정안전부 자료(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제외)
 (3) 서울시 생활인구자료(full)
 (4) 서울시 생활인구자료(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제외)

제 5 절 다수준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수준 모형을 도입하기 전 해당 모형의 전체 분산 중 집단 간 차이로 인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의 비율(ICC, intraclass correlaton)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준 모형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최소 5% 이상의 ICC 값이 추정되었을 때 다수준 모형을 도입하며 만약 이보다 작은 값이 추정될 경우에는 단일 수준의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1) Model 1

먼저 기초모형(Unconditional mean model) 검증을 통해 다층 분석 방법의 적용이 적절한지 판단하였다. 기초모형은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이며, 연구의 종속변수와 개인 수준 상수항과 지역 수준 상수항만을 포함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기초모형의 분석 결과

Mixed-effects	Coefficient	Std. err.	z	p	
QOL	6.294	.011	544.9	0.000	
Random-effects	Estimate	Std. err.	χ^2	p	ICC
ID	.9588	14.681	6603.94	0.000	.553
region	.9583	14.688			

분석 결과 첫 번째로 $\chi^2(2) = 6603.94$, $\text{Prob} > \chi^2 = 0.0000$ 으로 회귀분석(OLS)에 비해 다수준 분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on)를 살펴본 결과 지역 수준이 전체 분산의 5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Model 2 (인구·사회학적 변수 투입모형)

두 번째 모형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모형에 연령, 성별(남성),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상태(결혼/동거, 미혼, 이혼/별거/사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 주택입주 형태 변수를 분석 모형에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성별(남성), 가구소득, 혼인상태, 전반적인 사회 안전, 주택입주 형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결혼 집단에 비해 미혼은 삶의 질이 낮고, 이혼/별거/사별 집단은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가주택을 보유한 집단이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Model 3 (사회적 자본 변수 투입모형)

모형3에는 두 번째 모형에서 개인 수준 변수 중 사회적 자본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성) 변수를 제외하고 개인 수준 변수의 유의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경우 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Model 4 (기타 지역 수준 변수)

모형4에는 세 번째 모형에서 기타 지역 수준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수준 변수들의 유의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Model 5 ~ Model 9(지역 수준 변수 투입, 행정안전부 자료)

모형 5부터는 네 번째 모형에서 지역 수준 변수들을 하나씩 투입하였

다. 먼저 모형5에는 소득 다양성지수(entropy)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다양성지수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6에서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7에서는 모형5에서 국적별 혼합도(entropy)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별 혼합도(entropy)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8에서는 모형5에서 노출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노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9에서는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 수준 변수 중 소득 다양성, 국적별 혼합도, 노출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한 주요 변수 중 소득 다양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다양성과 삶의 질은 부(-)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치구 단위의 소득 다양성이 클수록 삶의 질이 형성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희용 외(2020) , 강성익·구자훈(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6) Model 10 ~ 12 (지역 수준 변수 투입, 생활인구자료)

모형 10부터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생활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2, 노출지수 2 변수를 각각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2를 추가한 모형 10과 노출지수 2를 추가한 모형 11을 살펴보면 두 변수 모두 개별적으로 투입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 12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자료는 소득 다양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에 반해 소득 다양성, 국적별 혼합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다수준모형 분석 결과 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Level 1(개인 수준)							
연령		-0.0101*** (0.00086)	-0.0116*** (0.00083)	-0.0115*** (0.00083)	-0.0114*** (0.00083)	-0.0114*** (0.00083)	-0.0113*** (0.00083)
성별(남성)		-0.0384** (0.01307)	-0.00161 (0.01291)	-0.00132 (0.01291)	-0.00158 (0.01291)	-0.00164 (0.01291)	-0.00177 (0.01291)
가구소득		0.0743*** (0.00267)	0.0663*** (0.00253)	0.0670*** (0.00256)	0.0669*** (0.00256)	0.0671*** (0.00256)	0.0669*** (0.00256)
혼인상태(미혼)		-0.132*** (0.02707)	-0.136*** (0.02607)	-0.133*** (0.0261)	-0.13*** (0.02611)	-0.13*** (0.02611)	-0.13*** (0.0261)
혼인상태(이혼/ 별거/사별)		0.186*** (0.0332)	0.123*** (0.03212)	0.12*** (0.03211)	0.119*** (0.03211)	0.12*** (0.03211)	0.119*** (0.03211)
전반적인 사회 안전		0.373*** (0.0102)	0.286*** (0.01004)	0.287*** (0.01004)	0.287*** (0.01004)	0.288*** (0.01005)	0.287*** (0.01004)
주택입주 형태		0.291*** (0.0231)	0.218*** (0.02198)	0.214*** (0.02201)	0.215*** (0.02201)	0.214*** (0.02201)	0.216*** (0.02201)
공동체 의식			0.347*** (0.01029)	0.348*** (0.0103)	0.348*** (0.0103)	0.348*** (0.0103)	0.348*** (0.0103)
사회적 지원망			0.102*** (0.00294)	0.103*** (0.00294)	0.102*** (0.00294)	0.102*** (0.00294)	0.102*** (0.00294)
사회적 신뢰			0.117*** (0.01205)	0.117*** (0.01205)	0.118*** (0.01205)	0.118*** (0.01205)	0.118*** (0.01205)
Level 2(지역 수준)							
재정자립도				-0.00168 (0.0012)	-0.00249* (0.00123)	-0.00242 (0.00123)	-0.000841 (0.00139)
교원 1인당 학생				0.0182***	0.0187***	0.0188***	0.0232***

수				(0.00396)	(0.00396)	(0.00396)	(0.00431)
인구 천 명당 의 사 수				0.00336 (0.004)	0.00481 (0.00403)	0.00387 (0.00409)	0.0033 (0.00408)
녹지율				0.00214** (0.00083)	0.00144 (0.00087)	0.00206* (0.00097)	0.00278** (0.00101)
소득 다양성 지 수(entropy)					-1.258** (0.44728)	-1.144* (0.45445)	-1.006* (0.45758)
인구 천 명당 외 국인 수						0.000813 (0.00057)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							-0.0595** (0.02289)
노출지수							
_cons	6.295*** (0.01155)	4.762*** (0.06442)	3.788*** (0.06575)	3.463*** (0.11679)	3.709*** (0.14584)	3.641*** (0.15346)	3.628*** (0.14909)

* p<0.05, ** p<0.01, *** p<0.001

<표 11> 다수준모형 분석 결과 2

	Model 8	Model 9	Model 10	Model 11	Model 12
Level 1(개인 수준)					
연령	-0.0114*** (0.00083)	-0.0113*** (0.00083)	-0.0114*** (0.00083)	-0.0113*** (0.00083)	-0.0113*** (0.00083)
성별(남성)	-0.00168 (0.01291)	-0.00177 (0.01291)	-0.00162 (0.01291)	-0.00162 (0.01291)	-0.00178 (0.01291)
가구소득	0.0671*** (0.00256)	0.0669*** (0.00256)	0.0670*** (0.00256)	0.0670*** (0.00256)	0.0668*** (0.00256)
혼인상태(미혼)	-0.13*** (0.02611)	-0.130*** (0.0261)	-0.130*** (0.02611)	-0.130*** (0.02611)	-0.130*** (0.02610)
혼인상태(이혼/별거/사별)	0.12*** (0.03211)	0.119*** (0.03211)	0.120*** (0.03211)	0.120*** (0.03211)	0.119*** (0.03211)
전반적인 사회 안전	0.288*** (0.01005)	0.287*** (0.01005)	0.287*** (0.01005)	0.287*** (0.01005)	0.287*** (0.01005)
주택입주 형태	0.215*** (0.02201)	0.216*** (0.02202)	0.215*** (0.02201)	0.215*** (0.02201)	0.216*** (0.02201)
공동체 의식	0.348*** (0.0103)	0.348*** (0.0103)	0.348*** (0.01030)	0.348*** (0.01030)	0.348*** (0.01030)
사회적 지원망	0.102*** (0.00294)	0.102*** (0.00294)	0.102*** (0.00294)	0.102*** (0.00294)	0.102*** (0.00294)
사회적 신뢰	0.118*** (0.01205)	0.118*** (0.01205)	0.118*** (0.01205)	0.118*** (0.01205)	0.118*** (0.01205)
Level 2(지역 수준)					
재정자립도	-0.00227 (0.00124)	-0.000858 (0.00145)	-0.00262* (0.00124)	-0.00265* (0.00124)	-0.000487 (0.00153)

교원 1인당 학생 수	0.0199*** (0.00402)	0.0231*** (0.00437)	0.0184*** (0.00397)	0.0184*** (0.00397)	0.0241*** (0.0046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0.00405 (0.00406)	0.0033 (0.00408)	0.00467 (0.00404)	0.00470 (0.00404)	0.00314 (0.00409)
녹지율	0.00233* (0.001)	0.00278** (0.00103)	0.00199* (0.00101)	0.00201* (0.00101)	0.00263* (0.00104)
소득 다양성 지수(entropy)	-1.091* (0.45663)	-1.005* (0.45893)	-1.169* (0.45522)	-1.174** (0.45377)	-1.019* (0.45821)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외국인 국적별 혼합도(entropy)		-0.0587 (0.03154)			-0.0687* (0.02837)
노출지수	0.834 (0.45936)	0.024 (0.63287)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2			0.000556 (0.00053)		
노출지수 2				0.667 (0.60906)	-0.414 (0.75486)
_cons	3.587*** (0.16053)	3.626*** (0.16186)	3.656*** (0.15440)	3.655*** (0.06442)	3.649*** (0.15392)

* p<0.05, ** p<0.01, *** p<0.001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추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다양성이 상반되는 측면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이라는 도시적 범위 안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더 적합한 설명을 제시하는지 탐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다양성과 국적 다양성 등의 사회적 다양성은 삶의 질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1과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Alesina and La Ferrara(2002), 하승현 외(2017)의 연구와 사경은 외(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경우 좀 더 높은 안정감을 느낀다는 갈등이론(Group Conflict Theory)의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갈등이론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적 다양성의 경우 다양한 출신 국가가 혼재된 경우에 비해 단일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정주하는 경우가 내국인의 시각에서는 해당 외국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한 Model 9와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한 Model 12 변수의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자료는 full model에서 소득 다양성만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쳤지만, 생활인구 자료는 full model에서 소득 다양성과 국적별 혼합도 두 변수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4>의 자치구별 변수 특성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와 노출지수 수치와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와 노출지수 수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 수준 변수 중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정한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 요인인 공동체 의식,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신뢰 모두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Helliwell & Putnam , 2004 ; Bjørnskov . 2006 ; 한세희 외 , 2010 ; 김혜연, 2011).

셋째,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성격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개인은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가주택을 보유한 집단이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결혼 집단에 비해 미혼은 삶의 질이 낮고, 이혼/별거/사별 집단은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타 지역 수준 변수들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녹지율 변수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율 변수의 경우 계수는 유의미하나 계수의 크기는 미미하여 해석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인지된 근린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고은정(2018), 최희용 외(2020)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경제적이거나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근린 환경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표 12> 가설검정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공동체 의식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사회적 지원망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사회적 신뢰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2-1. 지역 내 소득 다양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지역 내 국적별 혼합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2-3. 지역 내 노출지수는 삶의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최근 강조되는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간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된 논의는 다양한 인구구성을 지닌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들에서도 여러 지역적 요인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 연구에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자본 더불어 다양한 지역적 변수를 활용한 다층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양성의 구현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상반된 논의가 제기되는 사회적 다양성을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다양성 측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와 노출지수 변수를 구축한 것 외에도 생활인구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변수를 구축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면서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였고,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최근에는 삶의 질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 수준이나 그에 대한 개인 방안은 주로 개인이나 가구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부분적으로 지역 수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디자인하기 전 단순히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을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역량을 확인하고 더 높은 정책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관련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서울특별시는 2010년대 이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반되게 제시되어왔다. 앞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다양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적 다양성과 삶의 질과 관련한 세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시계열적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득과 인종의 각 집단 간 상호작용, 학습, 재평가 등이 진행될 경우 이것이 삶의 질에 미칠 영향력은 변동될 여지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하승현 외, 2017).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접촉과 관련된 논의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지수를 산출했으나 혼합의 방식이나 상호작용 형태, 접촉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접촉이론과 갈등이론 간의 상반된 견해를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개인 수준의 변수이나 소득 다양성, 국적 다양성, 노출지수와 같은 변수는 자치구 수준의 변수이다. 이는 서울서베이에서 구득가능한 개인에 대한 지리적 최소 단위가 자치구 수준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수준의 종속변수를 자치구 수준의 독립변수로 설명함으로써 인하여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미국 스폴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1.
- 고은정, & 안건혁. (2014). 사회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5(1), 1-15.
- 고은정. (2018).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도시연구, 19(2), 73-86.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구교준, 이희철, 김지원, & 박차늬. (2020).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 (regional capability) 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1), 161-182.
- 구교준, 임재영, & 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권미조, 이준영, & 최낙혁. (2018).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339-363.
- 김경준, & 이윤석. (2022). 거주지역 내 외국인 생활인구 수와 외국인에 대한 선주민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12(4), 61-88.
- 김동현, & 전희정. (2018).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3-36.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병섭, 최성주, & 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김성아, &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4), 95-104.
- 김태형, 최정인, 정세희, & 문명재. (2018).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1), 281-306.
- 김태희, & 홍근석. (2021).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3), 214-255.
- 김혜연(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

- 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pp.1~30.
- 박세훈, &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59-76.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 박지은, & 권순만. (2015).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와 건강 간의 연관성-주관적 건강과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8(1), 95-121.
- 박호준, & 박정민. (2022). 한국사회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변화의 추이와 상호연관성.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 311-331.
- 박희봉, &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9.
-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 사경은, & 이수기. (2018).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 분석: 대역소별 거리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3(6), 39-59.
- 사경은, 기동환, & 이수기. (2019). 서울시 다문화 수용 인식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 분석. 한국도시계획학회지 도시설계, 20(3), 95-114.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111-137.
- 서준우, & 강우창. (2021).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불평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5(2), 33-55.
- 송효준, 김두섭, & 함승환. (2018).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이주배경 학생 및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1).
- 신미정, & 이양수. (2018).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9(2), 185-207.
- 신은보. (2018). 한국인의 삶의 질과 사생관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1, 225-274.
- 안성호, & 곽현근. (2003). 동네 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4), 205-231.
- 안아림, & 마강래. (2019).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준거집단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2), 19-31.
- 양승호. (2014).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Yang Seungho.
- 엄현정. (2022). 근린환경 인식이 개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윤인진. (1998).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 형태와 사회적 함의. 서울학연구, (10), 228-269.
- 이상록. (2012).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277-302.
- 이세규. (2017). 근린무질서와 구도심 노인거주환경 만족도의 영향연구: 장소애착과 사회적 자본을 매개변수로. 주택도시연구, 7(1), 137-156.
-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331-354.
- 이양수. (2019). 주관적 웰빙 영향요인의 다면적 탐색-가구소득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24(1), 26-50.
- 이연경, & 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55(1), 1-39.
- 이영빈, & 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 이지은, 강민성, & 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정순돌, &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조민지, & 임업. (2016).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여. 지역연구, 32(3), 3-15.
- 조민지. (2017). 거주지역의 소득다양성이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 채희원, & 신정엽. (2015). 수도권 도시 공간의 사회적 다양성 변화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4(1), 139-154.
- 최도용. (2020). 사회적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서울시 거주지역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말옥, & 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 최영출 (2014). 사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 최예나, & 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53-78.
- 최은영, & 조대현. (2005). 서울 강남구의 경제적 장벽과 인구이동 특성. 서울도시연구,

- 6(4), 1-20.
- 하성규, 마강래, &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 하승현, 변미리, & 정창무. (2017).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2(4), 43-63.
- 한경원. (2006).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세희, 김연희, & 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 한승혜. (2020). 도시개발에 따른 소득구성 다양성과 주거지 분리의 변화. (국내박사학위 논문).
- 한준, 김석호, 하상응, &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홍경구. (2013).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만족도 및 거주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건축 기준 완화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6), 223-231.
- Alesina, A., & La Ferrara, E. (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2), 207-234.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1954. Gergen, Kenneth J., "The Significance of Skin Color in Human Relations.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 - 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Cole, I., & Goodchild, B. (2000). Social Mix and the 'Balanced Community' in British housing policy - a tale of two epochs. *GeoJournal*, 51, 351-360.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urley, A. (2005). Theories of urban poverty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ousing policy. *J. Soc. & Soc. Welfare*, 32, 97.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8). *Rethinking happiness: The science of psychological wealth*.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Diener, E., & Seligman, M. E.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63-73.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Academic press.
- Florida, R. (2011). "The Creative Class": from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2002). In *The City Reader* (pp. 175-181). Routledge.
- Frank, R. H. (1985). *Choosing the right pond: Human behavior and the quest for status*. Oxford University Press.
- Gabbay, S. M., & Leenders, R. T. (1999). CSC: The structure of advantage and disadvantage. *Corporate social capital and liability*, 1-14.
- Gabbay, S. M., & Leenders, R. T. A. (Eds.). (1999). *Corporate social capital and liability*. Kluwer Academic.
- Goodchild, Barry, and Ian Cole. (2001). "Social balance and mixed neighbourhoods in Britain since 1979: a review of discourse and practice in social housing."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9(1): 103-121.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 - 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 - 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Kim, H., & Ohtake, F. (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No. 2014-01). KDI Policy Study.
- Kraut, R. E., & Johnston, R. E. (1979). Social and emotional messages of smiling: an ethologic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9), 1539.
- LeVine, R. A., &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 Light, I. (2004). Social Capital's Unique Accessi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1).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dyun, N. I., & Lee, M. (2016). *Multi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apital*

- and social disorganization: Exploring urb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in glocal perspectives: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pp. 121-134). Singapore: Springer Singapore.
- Maly, M. T. (2000). The neighborhood diversity index: A complementary measure of racial residential settlement. *Journal of Urban Affairs*, 22(1), 37-47.
- Oliver, J. Eric. (2001). *Democracy in suburb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rfield, Myron. (2002). *American metropolitics: Social segregation and spraw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8(3), 181-194.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8(3), 181-194.
- Lin, N. (2001). *Social capital: networks and social resource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Y. (1992).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din, Y., & Holman, N. (2004). Re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social capital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environment*, 9(2), 117-133.
- Suh, E. M., Prieto, C. K., Diener, R. B.,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1-23.
- Swanson, D. A., and Tayman J., 2011, On estimating a de facto population and its components.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7, 17-31.
- Talen, E. (2010). The context of diversity: a study of six Chicago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7(3), 486-513.
- Talen, Emily. 2006a. "Neighborhood-level social diversity: Insights from Chicago."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2(4): 431-446.
-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Veenhoven, R. (2007).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pp. 214-239). Palgrave Macmillan UK.

Veenhoven, R.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Abstract

A Multifaceted Perspective Study of Affect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social diversity of the
residential area -

Iksun Yu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diversity in the residential area on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living in the area. In this study, individual-level variables were constructed using '2020 Seoul survey', and regional-level variables were constructed using data from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Seoul Open Data Plaza'.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diversity and individual quality of lif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hich supports the "group conflict theory" that the higher social diversity, the higher the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ccurs.

This study is of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that it utilizes multi-level analysis that can comprehensively examine regional-level factors along with individual-level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 quality of life, and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social diversity-related polici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ime series fluctuations. Second, this study calculated the exposure index using De Facto Population data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pen Data Plaza' to overcome the limitations raised in contact-related discussions as much as possible, but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quality of contact and interaction. Finall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ecological fallacy may occur by explaining individual-level dependent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autonomous district level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available in Seoul Survey.

**keywords : social diversity, quality of life, seoul survey,
multi-level analysis**

Student Number : 2021-28266